

성도의 의심과 예수님의 위로

성경말씀: 눅7:19-35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 완성 및 신약 시작, 제자들 임명(눅6:13-19),

제자의 마음 자세, 인간관계, 급진적(파격적)으로 사랑하기, 공흘을 베풀 줄 아는 좋은 사람

나무는 열매로 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그렇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음

7장부터는 공흘의 사역을 시작함: 백부장의 종을 고침, 나인 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림

<성도의 의심과 예수님의 위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의심 속에 잠긴 하나님의 사람 위로

침례자 요한

그는 누가복음 시작부터 나옴, 사가랴와 엘리사벳(1:6), 이스라엘의 기쁨(1:14-16)

구약시대 엘리야의 영과 권능(17), 백성을 돌이키는 사역

광야에서 지내다가(1:80)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회개의 침례(마3:1-2)

메시아의 하늘의 왕국 메시지, 성령 침례와 불 침례(3:16-17), 알곡과 겹질, 특히 겹질 심판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 적어도 2년 정도는 지난 시점

헤롯 안디바, 헤로디아의 일로 감옥에 갇힘(마14:1-12)

정보를 듣는데 의심이 생김, 광야 생활에서 감옥으로 적응이 되지 않음(정신적, 육체적 갈등)

눅4:18,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준다면 바로 침례자 요한이 첫째 후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의심과 낙담에 빠지곤 하였다.

모세(민11:10-15): “이집트가 그림자. 죽여 주세요.” 엘리야(왕상19), 바울(고후1:8-9)

의심과 불신의 차이

a. 의심은 생각 속의 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b. 불신: 의지의 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겠다.”

c. 의심은 OK, 불신은 No! d. 침례자 요한은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 생겼다. “왜 이럴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두 측면을 보고 있다: 초림과 재림

침례자 요한은 초림(하나님의 어린양)보다는 심판을 가져오는 재림의 그리스도(메시아)

심판과 구출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공흘을 베풀고 구출해 주지 않는다.

초림의 어린양과 재림의 왕, 어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빠르게 살려고 하는데 일이 꼬여요. 아이들이, 남편이 속을 썩여요.

힘들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데 힘들어요. 목사가 너무 힘들게 해요. 신약 교회 힘들어요”

결국 침례자 요한은 의심을 풀기 위해 자기의 두 제자를 보내 물어보았다(19-20).

우리도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져가자.

예수님의 대답(21-23)

1. 바로 그 시각에 친히 놀라운 기적들을 행함(21): 경험

2. 내가 메시아의 기적들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라(22). 사26:19; 29:18; 35:5; 61:1

예수님의 기적들은 1차로 메시아 기적, 그것들을 복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3. 그런데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 요한을 구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음

4.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23).

요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을 믿고 순종하며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5. 구원 받았는데: 병, 재정, 배우자, 자식, 부모,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이들

목사도 도와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의롭게 처리해 주신다. 믿어라.

예수님의 획증(24-29)

요한의 제자들이 없을 때에 요한에 대해 칭찬함. 대개는 칭찬이 사람을 병들게 함

1. 확신의 사람: 갈대가 아니다(24), 바위 같은 사람, 헤롯과 헤로디아의 일

2.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화려한 옷 거부(25), 광야의 사람, 주님을 위해 자기 부인

3. 대언자(26):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특권, 제사장 출생이지만 대언자, 구약은 대언자 시대
4. 대언자 이상 가는 자(27), 말3:1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대언자가 없던 시대에 메시아를 직접 보고 그분을 선포하는 대언자.
5. 구약시대에 그보다 더 큰 대언자는 없었다(28):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해서
6. 그럼에도 그는 왕국의 선포자, 왕국의 시민은 아니다. 그는 구약성도, 이 차원에서 신약성도가 낫다. 신랑의 신부가 아니라 친구(요3:29-30)

백성의 확증과 거부(29-30)

1.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29):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일은 다 옳다.
2. 지도자들(30):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함, 메시아, 왕국 등 다 거절
3. 둘의 차이: 요한의 침례 인정 여부, 그것은 회개의 침례(눅3:3), 회개에 합당한 열매(3:8)
말씀으로 삶이 변한 자들: 어떤 말씀? “독사의 자식들이 회개하라!” 죄 선포 공감, 회개, 변화
그렇지 않은 자들(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전통, 명예, 기득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의 요구는 완전함, 그래서 그들은 실패함
 - a. 교회 예식, 전통 등에 익숙함: 특히 목사, 지도자, 오래된 성도
 - b. 죄에 대한 인식이 낮음: “이 정도는 OK”, 하나님은 죄를 차마 보지 못한다.
 - c. 자기 의: “저들보다는 내가 낫지”, d. 죄의 속박(롬3:10-18)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31-34)

1. 주님을 거부하는 세대들은 누구와 같은가?(31-32) 장터에 앉은 아이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음, 애곡해도 울지 않음, 무슨 일을 해도 같이 게임을 하려 하지 않는 아이들,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피리를 불고 애곡하며 거기에 따른 일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 아이들은 전혀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 무슨 일이 생겨도 하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굳힘
2. 침례자 요한: 나사르 사람, 빵과 포도즙 먹지 않음(1:15),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헌신 및 회개 강조 거부자들의 말(33): 정신이 나갔다. 마귀 들렸다.
3. 예수님: 먹고 마시고 보통 사람들의 친구(34), 음식을 탐하는 자, 술주정뱅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
4. 누가 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는 “너무 단순해. 심오한 철학이 없어”, 바울의 심오한 설명을 듣고는 “뭐 이리 복잡해. 복음이 쉽지 않네.”, “목사가 회개를 너무 강조하네, 거룩함만 강조해, 너무 교리적이야. 알아야 한다고만 해.” “교회가 사랑이 없어. 냉랭해.” “그리스도인들은 다 위선자야”, “조선 시대 사람들, 아마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진화론은 틀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야” “킹제임스 성경이 옳아도 나는 믿지 않기로 했어”
5.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죄를 두고 애곡할 때 울어야 한다. 구원의 피리 소리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기뻐 춤추어야 한다. 동기가 주어질 때 바르게 수용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에 의해 인정받는다(35)

1. “그러나”, 불신자들의 하나님의 일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는다.
2. 지혜는 자식들이 있다. 즉 지혜에 의한 결과들이 있다.
3. 여기의 지혜는 주님 자신(잠8:1, 12-13, 17, 22-23, 30, 32-33, 35)
지혜의 자녀들은 그분의 말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 이들의 말과 삶을 보면 그분이 다 옳으심을 알 수 있다.
4. 지혜는 그 자녀들 속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 자녀들은 다 동일하게 외친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롬3:4)
5.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가? 주님 때문에 바뀐 것이 드러나는가? 그분의 영광이 되는가?

결론

1. 의심 OK, 불신 No!, 2. 내 뜻대로 안 돼도 침례자 요한은 순종하고 죽으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다.